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1호 2014. 3, 논문 pp. 149~162 149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장용언* · 서정열** · 황현주***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in Seoul on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Yong-Eun Jang* · Jung-Youl Seo** · Hyun-Joo Wang***

요약 : 본 연구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27개소의 자활사업 참여자 4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결과분석에는 46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 462명 중 230명(49.8%)이 지난 1년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활의지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자기유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증진에 효과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활사업 참여자, 지각된 스트레스, 자활의지, 자기유능감, 매개효과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n Seoul on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of 473 participants from the Seoul self-sufficiency center was conducted, and in the analysis a data from 462 participants was used.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bout a half of the total samples, 230 out of 462, showed high stress levels for the past year. Second, when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tress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d self-effic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d effec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of program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perceived stress.

Key Words :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perceived stress,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 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ucheon University)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sjy3279@hanmail.net, Tel: 02-6010-8335)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Ⅰ. 서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도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시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된 것은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 질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공부조 대상인 빈곤층의 삶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자활의 측면을 촉진시키지는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김승의, 2006).

대한민국 성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신동아와 NICE R&C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저소득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아, 2012). 빈곤층은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 빈곤층의 스트레스는 절망감, 사회적 낙인감, 부정적인 자기동일시,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심리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하며, 그 결과 자활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이와같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자활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참여자들의 자기유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nz and Kalil, 1999).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전이하는 부정적인 차원이 자기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최소빈, 2009), 자기유능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에 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숙 · 표내숙, 2006). 또한, 자기유능감의 향상은 자활의지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문국, 2000). 자기유능감과 같은 심리 · 사회적인 요인들이 낮은 경우 근로의욕이나 능력으로 발현되는 자활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자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활의지와 관련하여 대부분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뤄져 왔으며, 개인의 심리 · 정서적 측면의 연구의 경우도 정신건강이나 심리 · 사회적인 요인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관계나 원인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유능감과 자활의지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유능감의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기유능감이 낮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활의지

스트레스(stress)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사건으로, 개인이 가지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고유의 경험을 의미한다(Lazzarus and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리 · 심리 · 사회적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차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공선영, 2000). 특히 빈곤계층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자주 위협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hrenwend, 1973; Ennis et al., 2000). 일반적으로 인간은 외적 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내적 자원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미령, 2005). 빈곤층에서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삶의 사건들은 증가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엄태완, 2006).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다른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전반적으로 인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빈곤층의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슬픔,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적 불안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경 · 최선남, 2009). 또한, 빈곤층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Turner et al., 1995).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지각된 스트레스는 이들의 자활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빈곤의 만성화에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활의지(self-sufficiency will)는 '자립의지', '자활의욕',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와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박영란 · 강철희(1999)는 자립의지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통제능력, 문제해결의지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엄태영 외(2008)는 정서적 자활을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민숙 외(2012)는 정서적 자활을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으로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마음,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의지,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활의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장호(2012)는 자활의지를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무력감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개념이 수급의존을 탈피하고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과 의지를 갖는다는 의미가 공통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자활의지에 대한 명칭과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자활의지'를 빈곤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일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활을 돕는 지역자활센터의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느끼고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이후 자

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남식 외, 2002). 실제로 자활참여자가 다양한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취한다고 해도 스스로가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자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빈곤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될 수 있어 빈곤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Wilson, 1987).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궁극적 자활을 위해서 경제적 자활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자활의지, 즉 자기 스스로가 일을 통해 빈곤을 탈피해야 한다는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다(이래혁 외,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수준은 자활의지와 관련된 자활참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2003). 지각된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적인 증상과 음주를 비롯한 각종 중독 등의 외현화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빈곤층이 정신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상규·이병하, 2004; 노병일·곽현근, 2005; 엄태완, 2006; 김수정, 2008; 석주영·박인전, 2009; Link et al., 1993; Miech and Shanahan, 2000; Mirowsky and Ross, 2001; Dooley and Prause, 2002).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무력감·우울·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불균형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2.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유능감

빈곤계층은 비빈곤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불안과 같은 요인은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박상규·이병하, 2004), 빈곤한 경우가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유조안, 2000).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전이해주는 부정적 차원들은 자기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최소빈, 2009), 무용전공 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숙·표내숙,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과 같은 심리·사회적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이 낮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지고, 우울 성향이 낮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는데(김은선, 2004; 박경숙·박능후, 2001),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과 자기유능감을 매개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도 함께 탐색적(exploratory)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자기유능감과 자활의지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은 특정과업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 동기, 인지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신제구·백기복, 2000), 이는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자신감 또는 행동의 변화를 중재하는 인지체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자기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자 인간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유능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빈곤계층의 자활의지와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함을 보고하였다(이문국, 2000). 이는 개인적 동기와 생산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나 연대감, 협력, 동일시를 통한 심리적 유능감이 자활의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유능감이 강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이나 문화적 가치를 보다 쉽게 수용해내며 자활과정을 자신의 기술을 나타내는 기회로 여길 수 있어 자활의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자기유능감 정도에 따라 자활의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강한 유능감은 성공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유능감은 자활의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업 수행능력과 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Schmitt et al., 1979), 자기유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경우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은선, 2004; 이래혁 외, 200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시 소재 전체 31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이다. 조사시점은 사전검사[1]를 포함하여 2010년 4월에서 6월에 진행되었으며, 사전검사는 2010년 4월 29-30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서울지역 자활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2] 중 이용가능 표본추출(avail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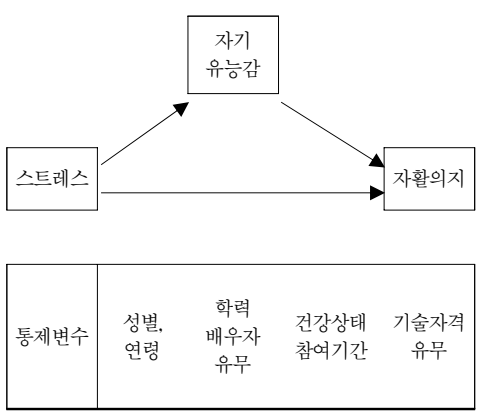
1) 본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내용, 질문형태, 문항작성, 질문순서 등의 오류를 사전검토 하였다(채구묵, 2008).

2) 확률 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은 연구자의 의식·무의식의 편견을 피하게 해주고 표본오차를 추정하게 해주므로 사회과학에서 주요한 조사방법이지만,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대규모 사회조사에서 적절치 않는 경우 종종 비확률표본추출을 사용하기도 한다(Rubin and Babbie, 2001).

서울지역자활센터 전체 31개소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중 이용가능 표본추출(avail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센터장, 실장 또는 선임팀장급 이상의 직원 1명을 전담자로 섭외하여 본 연구의 목적, 중요성 및 주의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설문 응답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010년 5월에 서울지역자활센터 총 31개소에 1개소당 20부씩 총 620부를 배포하였으며 6월까지 총 27센터에서 47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473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46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스트레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다른 대처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인지상태인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개인 생활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Perceived Stress Scale)는 Cohen et al.(1983)이 고안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다른 대처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인지상태를 사정하는 도구이다. PSS는 최소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 5, 7 그리고 8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780로 나타났다.

2) 자활의지

자활의지는 소득의 부재로 인해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활·자립에 이르려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의지에 관한 조사도구는 권용신(2009)이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활의지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활의지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35로 나타났다.

3) 자기유능감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은 박현선(1998)이 사

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다. 측정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6점~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유능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85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스트레스 외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본인학력, 건강상태, 기술자격증 유무 등이 있다(박은아, 2006; 임희선,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 이외에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자활사업 참여기간, 기술자격증 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거친 후 투입되었으며,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통계방법론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 중 질적변수인 성별, 경력 및 직책은 가변수화해서 투입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3]과 공차한계(Tolerence)[4]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값은 모두 3.3미만, 공차한계(Tolerence)는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김계수, 2008; 이윤로 · 유시순, 2009).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119명(26.0%), 여자가 311명(46.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74명(16.5%)으로 가장 낮았고, 40대는 203명(45.3%), 50대 이상은 171명(38.2%)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가 84명(20%), 고졸이 265명(63.2%), 대졸 이상이 49명(11.7%)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306명(68.2%)이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307명(67.2%)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194명(44.8%)이 1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자격증은 231명(55.7%)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산팽창요인(VIF)값은 1.055~1.094로 나타나 모두 3.3미만으로 나타남.
4) 공차한계(Tolerence)는 .914~.948로 나타나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남.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458)	남	119	26.0
	여	339	74.0
연령대 (n=448)	30대 이하	74	16.5
	40대	203	45.3
	50대 이상	171	38.2
학력 (n=419)	중졸이하	84	20.0
	고졸	265	63.2
	전문대졸	21	5.0
	대졸이상	49	11.7
배우자 유무 (n=449)	유	143	31.8
	무	306	68.2
건강상태 (n=457)	매우 건강함	71	15.5
	조금 건강함	127	27.8
	보통	109	23.9
	별로 건강하지 않음	120	26.3
	전혀 건강하지 않음	30	6.6
자활사업 참여기간 (n=433)	1년 미만	194	44.8
	1년 이상 - 2년 미만	98	22.6
	2년 이상 - 3년 미만	41	9.5
	3년 이상	100	23.1
기술자격증 유무 (n=415)	유	184	44.3
	무	231	55.7

2.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통제변수를 제외한 주요변수의 특성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의 평균은 3.86(SD=.61)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의 평균은 2.93(SD=.45)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 변인의 평균은 2.81(SD=052)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M	SD	최소값	최대값
스트레스	462	2.93	.45	1.50	4.70
자기유능감	454	2.81	.52	1.00	4.00
자활의지	465	3.86	.61	1.20	5.00

2) 주요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

스트레스 고저에 따른 자활의지와 자기유능감의 차이와 자기유능감 고저에 따른 자활의지의 평균차이를 〈표 3〉과 같이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자활의지 평균이 3.81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평균 3.91보다 0.10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의 자활의지 평균이 4.02으로 자기유능감이 낮은 자활의지 평균 3.66보다 0.36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1).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의 자활의지 평균과 자기유능감이 낮은 집단의 자활의지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이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유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활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자기유능감 평균이 2.68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평균 2.93보다 0.25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1).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자기유능감 평균과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자기유능감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들의 평균 차이 검증

변수명	구분	n	M	SD	t
자활의지	스트레스 고	230	3.81	.59	-1.748
	스트레스 저	232	3.91	.63	
자활의지	자기유능감 고	255	4.02	.58	6.717***
	자기유능감 저	199	3.66	.57	
자기유능감	스트레스 고	222	2.68	.51	-5.243***
	스트레스 저	231	2.93	.51	

* p < .05, ** p < .01, ***p < .001

3. 연구모형의 검증

자활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자활의지와의 영향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 질적변수인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자격증유무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가변수화해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방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Mackinnon et al., 2002). 우선, 1단계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2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 1단계 분석 :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자기유능감에 대한 총설명력은 18.8%(adjusted R^2=.18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학력(β=-.17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β=-.354, p<.001)는 자기유능감에 부적(negative)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기유능감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단계 분석 : 스트레스와 자기유능감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Model 1),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Model 2)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포함된 Model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자활의지에 대한 설명력(adjusted R^2)은 6.9%였으며,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분석과는 달리 기술자격유무(β=.153, p<.01)만이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유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2를 분석한 결과 Model 1의 설명력에 비해 변화된 설명력은 16.6%(R^2 change=.0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Model 2의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격증유무(β=.139, p<.01)와 배우자유무(β=.109, p<.05)는 정적(positive)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β=349, p<.001)은 자활의지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자격증이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을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가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유능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활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353)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	.016	.061	.014	.269	.022	.057	.019	.382
	연령	.006	.004	.081	1.516	.004	.003	.053	1.047
	학력	.100	.028	.188	3.576***	.095	.026	.178	3.611***
	배우자유무	-.052	.057	-.048	-.904	-.030	.054	-.028	-.557
	건강상태	-.084	.024	-.190	-3.566***	-.043	.023	-.097	-1.878
	참여기간	.000	.001	.011	.207	.000	.001	-.008	-.160
	기술자격유무	.084	.054	.082	1.557	.043	.051	.041	.833
독립변수	스트레스					-.396	.057	-.354	-6.973***
R^2		.095				.207			
Adjusted R^2		.076				.188			
R^2 Change		-				.112***			
F(Sig.)		5.159***				11.215***			

* p < .05, ** p < .01, ***p < .001

〈표 5〉 스트레스와 자기유능감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n=353)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	.098	.070	.075	1.401	.089	.066	.069	1.348
	연령	.006	.004	.077	1.423	.005	.004	.058	1.141
	학력	.032	.032	.052	.979	-.006	.031	-.010	-.204
	배우자유무	.123	.065	.100	1.884	.135	.062	.109	2.180*
	건강상태	-.038	.028	-.076	-1.372	-.021	.027	-.042	-.799
	참여기간	.000	.001	.018	.343	.001	.001	.021	.417
	기술자격유무	.181	.063	.153	2.885**	.164	.059	.139	2.758**
독립변수	스트레스	-.200	.069	-.157	-2.890**	-.043	.070	-.034	-.612
매개변수	자기유능감					.398	.062	.349	6.380***
R^2		.090				.187			
Adjusted R^2		.069				.166			
R^2 Change		-				.096***			
F(Sig.)		4.272***				8.758***			

* p < .05, ** p < .01, ***p < .001

3) 3단계 :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기유능감은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를 하기 위한 검증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5]을 이용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 계수) : 스트레스 → 자기유능감
SE_a : a의 표준편차
b(비표준화 계수) : 자기유능감 → 자활의지
SE_b : b의 표준편차

〈표 6〉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 로	a(SEa)	b(SEb)	Zab
스트레스 → 자기유능감 → 자활의지	-.396(.057)	.398(.062)	-4.715***

*p < .05, **p < .01, ***p < .001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은 -4.715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유능감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자활의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제고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 중 절반 정도인 230명(49.8%)이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은 참여자도 95명(20.6%)에 달했다. 이는 10명 중 2명이 스트레스가 심해 자활사업 참여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인 스트레스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투입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참여기간 및 기술자격증 유무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 및 기술자격 유무만이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부적(negative)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 악화 상태가 자활참여태도에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록(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자기유능감이 자활의지에 정적(positive)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유능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5) 공식에 투입된 a(비표준화계수), SEa(a의 표준편차)는 〈표 4〉에서 산출된 스트레스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b(비표준화계수), SEb(b의 표준편차)는 〈표 5〉의 Model 2에서 산출된 자기유능감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편차이다.

수 있다.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이 투입되는 경우 전적으로 자기유능감을 통해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유능감 증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활의지를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본적인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유능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기유능감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수정 ·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활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유능감 향상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유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 ·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6])을 자활사업에 도입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심리 · 정서적 기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정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수찬, 2005).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시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조사대상을 서울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서울 외의 지역에 대한 표본대표성이 없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표집과정에서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 중 이용가능표본추출(avail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는 전국단위 확률표본추출을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학력과 같은 통제변수들에 대해 구조방정식의 다집단분석 등을 통해 집단간 경로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유능감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변인들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여 자활참여자의 자기유능감과 자활의지에 대한 영향관계를 보다 구체적

6)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은 초기 근로자의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어 점차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가족문제, 재정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을 위한 통합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이미경, 2008). 선진국에서는 EAP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 · 정서적 문제를 관리하고 예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우 EAP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최수찬, 2004; 최수찬, 2005).

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실천적 개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와 아울러 향후에 진행될 후속 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되며, 자활의지을 제고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남식 · 신은주 · 성정현, 2002,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민숙 · 윤영석 · 김근식, 2012,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4

권용신, 2009,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계수, 2008,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결식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김승의, 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 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선, 2004, "빈곤여성가구주의 심리 · 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 · 표내숙, 2006, "무용전공 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5(6): 291~299.

노병일 · 곽현근, 2005, "동네의 맥락적 특성이 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학」, 17, 5~31.

박경숙 · 박능후, 2001, 「저소득층여성가장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개발」, 경기도.

박상규 · 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박영란 ·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박은아, 2006, "조건부 수급자의 음주문제 관련 요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장호,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의 정서적 지지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석주영 ·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신제구 · 백기복, 2000, "집단애피커시의 예측변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사 · 조직연구」, 8(2): 1~32.

신동아, 2012, "스트레스 가장 높은 지역은", 179~181, 8월호.

엄태완, 2006,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1): 59~85.

엄태영 · 김동기 · 허미경, 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전지역 가사 · 간병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24.

유조안, 2000, "저소득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래혁 · 김승아 · 노혜진,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사회 특성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자활후견기관 12개소를 중심으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제1회 자활사업논문공모전 논문 수상집 최우수상, 5~40.

이문국, 2000, "도시빈곤지역 조직사업의 전통과 자활지원센터의 실천 계승적 의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자료(미간행), http://www.jahwal.or.kr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이상록 ·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이윤로 · 유시순, 2009,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학지사.

임희선, 2007, "여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음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채구묵, 200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양서원.

최소빈, 2009,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역할갈등과 자기유능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857~866.

최수찬, 2005, 「국내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 근로자의 욕구에 근거한 기업복지 프로그램 개발」, 집문당.

최수찬, 2004, "기업근로자의 사회심리적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6(1): 71~103.

최인경 · 최선남, 2009, "학교상담: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2): 1097~1112.

Baron, M. A., and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Cohen, S., Kamarck, T. and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Dohrenwend, B. S., 1973, "Social statu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25~235.

Dooley, D. and Prause J., 2002,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787~813.

Ennis, N., Hobfoll, S. E., and Schroder, K. E., 2000, "Monet dosen't talk, it swears: How economic stress and resistance resources impact inner-city women's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149~173

Kunz, J. and Kalil, A., 1999,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elfare use", *Social Work Research*, 23(2): 119~126.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282~325.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ink, B. G., M. C. Lennon, and B. P. Dohrenwend.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The Role of Occupations Involving Direction, Control, and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51~1387.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and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Miech, R. A. and M. J. Shanahan, 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162~176.

Mirowsky, J. and Ross, C. E., 2001, "A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32~150.

Rubin, A. and E. Babbie, 2001,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4th ed.), Wadsworth: Thomson Learning.

Schmitt, N., Coyle, B. W., Rauschenberger, J., and White, J. K., 1979, "Comparison Of Early Retirees And Non Retirees", *Personnel Psychology*, 32(2): 327~340.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Turner, R. J., Wheaton B., and Lloyd, D. A., 1995, "The Epidemiology of Social Stress", *Amercan Sociological Review*, 60: 104~125.

Wood, R. E., Bandura, A., Bailey, T., 1990, "Mechanisms govern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mplex decision-making environ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6: 181~201.

Wilson, William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1월 2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
2차심사완료일 : 2014년 3월 3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3월 19일